

소비에 대한 요인별 세계화의 영향 분석*

윤재형

국립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he Influences of the Globalization Factors on Consumption

Jai-Hyung Yoon^a

^aDepartment of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 2019, Revised 16 Dec 2019, Accepted 24 Dec 2019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rade globalization and financial globalization on consumption classified by type(durable, quasi-durable, non-durable and service). On the other hand, trade globalization and financial globalization were decomposed into OECD common factor, regional factors, and the idiosyncratic country-specific factors by time-varying dynamic factor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OECD common factor, regional factors, and the idiosyncratic country-specific factors of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were analyzed. Furthermore, the influences of these factors on consumption by type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s that globalization has negative effects on consumption. In particular, we found out that the idiosyncratic country-specific factor of Korea in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onsumption. We can infer that the globalization affecting consump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idiosyncratic country-specific factor, which is economic choice rather than uncontrollable global trend. Accordingly, to solve the sluggish consumption problem caused by globalization, it is necessary to require not only domestic consumption expansion policies but also the efforts to resolve economic polarization problems to be able to stimulate consumption.

Keywords: Globalization, Economic Polarization, Cointegration Test, Time-Varying Dynamic Factor Model

JEL Classifications: C23, E21, F49

I. 서론

세계화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 특히 세계화가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석과 논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안동대학교 해외파견연구보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 E-mail: jhy@anu.ac.kr

© 2019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화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이익을 위해 개별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 공통요인, 개별국가요인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될 수 있다. 이때, 세계화가 개별국가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면, 이는 세계화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개별국가는 산업양극화, 소득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세계화의 속도 및 수준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화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을 통한 공급측면에서 세계화는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소비, 투자, 무역수지 등의 수요측면의 경로를 통해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의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세계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는 소비에 긍정적인 경로와 부정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로로는 먼저, 세계화를 통해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하는 경로이다. 둘째, 세계화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셋째, 세계화는 수입세 가격을 낮추어 전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소비구조가 국산에서 수입산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계화가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경제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고용을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노동실태조사”로부터 300인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2017년 대기업 고용은 전체 고용의 15.6%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화는 장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Yoon Jai-Hyung, 2018). 이외에 Noh Mean-Sun (2019)은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한국의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10인상 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2.6%p 하락하여,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세계화는 고용 및 소득양극화를 통해 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화는 경쟁력 있는 산업의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노동자에게는 낮은 임금을 주고, 이로 인해 소득양극화¹⁾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 전체 소비는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중 FTA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금속제품의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im Ji-Yong, 2018). Shena Zhi-Feng, Tae-In Kim and Ji-Jian Gu (2017)는 두 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한·중 FTA 이후에 무역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처럼 경쟁력 없는 산업분야에서는 세계화가 국내임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세계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소비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

한편, 금융부문에서의 세계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상존한다. 첫째는 소비자들이 세계금융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에 대한 예산제약을 완화하여, 소

1) 다만, 소득양극화가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의 숫자를 늘려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벌어져 소득양극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양극화가 전체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

비를 늘릴 수 있다. 반면, 금융세계화를 통한 국제적인 자본이동은 자본유출국에서는 고용감소, 자본유입국에서는 고용증가를 통해 소득 및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화는 다양한 지표로 정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세계화지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측정된 세계화 지표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세계화지표는 세계적인 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소비가 한국의 세계화지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영향이 세계적인 흐름에 기인한 것인지,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계화지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세계화의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소비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연구를 소비함수와 관련한 연구, 세계화와 소비가 연계된 연구로 구분하였다. Keynes의 소비함수 이래로 소비와 관련한 연구는 Hall (1978)에 이르러 기대이론이 도입되면서 한층 발전하였다. 한편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장기소비함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패널자료를 이용한 단기소비함수에 대한 분석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세계화와 연관된 소비와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소비함수와 관련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 세계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제시하였다.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wang Jinyoung and Sun-Ho Lee (2015)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가계부채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소비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가계부채가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은 점차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Choi Nam-Jin and Dong-Hun Joo (2016)도 가계부채와 부채의 변동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부

채상환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가계부채의 변동성 증가는 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추정되었다.

Bae MiKyeong and Kwanghee Park (2005)는 주요지출항목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기변동 및 물가의 변화는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주었으며, 계층별로 소득결정함수가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소비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Kang Hui-Don and In-Hwan So (2005)은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청·장년층의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고령화도 청·장년층의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경제전체의 후생수준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Kim Byung-Woo (2018)는 중첩세대모형과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공적연금이 과도한 자본축적을 억제하여 소비 및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와 다르게 공적연금이 소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i Heegab (2003)은 소비자태도조사의 주관적 불확실성을 활용하여 소비 또는 소득불확실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찾아냈다. Yo JooHee and Choon-Geol Moon (2011)은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평탄화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은 소비수준과 가계의 인구학적인 특성변수의 함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통제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비의 과잉민감성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Sun-Ok (2011)은 한국·일본·중국의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세 나라의 소비합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한국과 일본은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지만, 중국의 경우, 중상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은 호경기와 불경기에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를 보였으나, 한국과 일본은 경기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합수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소비는 가계부채, 소비 및 소득 불확실성, 인구고령화, 공적연금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소비합수의 특성들에 대해 잘 분석되었다.

한편 세계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해외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해외연구에서도 세계화와 소비가 연관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해외연구 중에서 Kónya and Ohashi (2004)는 OECD국가들의 소비패턴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OECD국가들의 소비패턴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Chen(2017)은 45개국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화와 저축과의 연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세계화와 소비와의 연관관계도 함께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로부터 국제무역은 소비자에게 해외상품들에 대한 접근을 쉽게하여 소비를 자극하고, 금융세계화는 소비자에게 차입제약을 완화하여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도록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화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Kim Young-Joon and Jong-Chil Son (2014)은 세계화에 따른 생산요소의 해외아웃소싱 및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가설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숙련노동 임금프리미엄 증가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및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생산요소의 해외아웃소싱이 숙련비숙련 노동의 임금격차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세계화가 임금소득의 양극화를 이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연계하여 Risso, Punzo and Carrera (2013)는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불평등지수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와 지니계수와의 다양한 공적분 분석에서, 1인당 GDP와 지니계수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 자료를 활용한 Yoon Jai-Hyung (2017)의 연구에서도 1인당 GDP와 지니계수는 음(-)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세계화는 소득양극화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 그리고 소비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화지표를 OECD 공통요인, 지역요인, 한국의 개별국가요인으로 분해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소비합수를 추정하였다. 즉 세계화 추이가 세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면,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반면, 개별국가요인에 기인한다면, 이는 정책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가변형 동학적 요소분석(time-varying dynamic factor analysis)접근법을 활용하여 세계화지표를 OECD 공통요인(common factor), 지역요인(regional factor), 개별국가요인(idiosyncratic country factor)으로 분해한 후 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소비의 형태에 따라 세계화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화가 형태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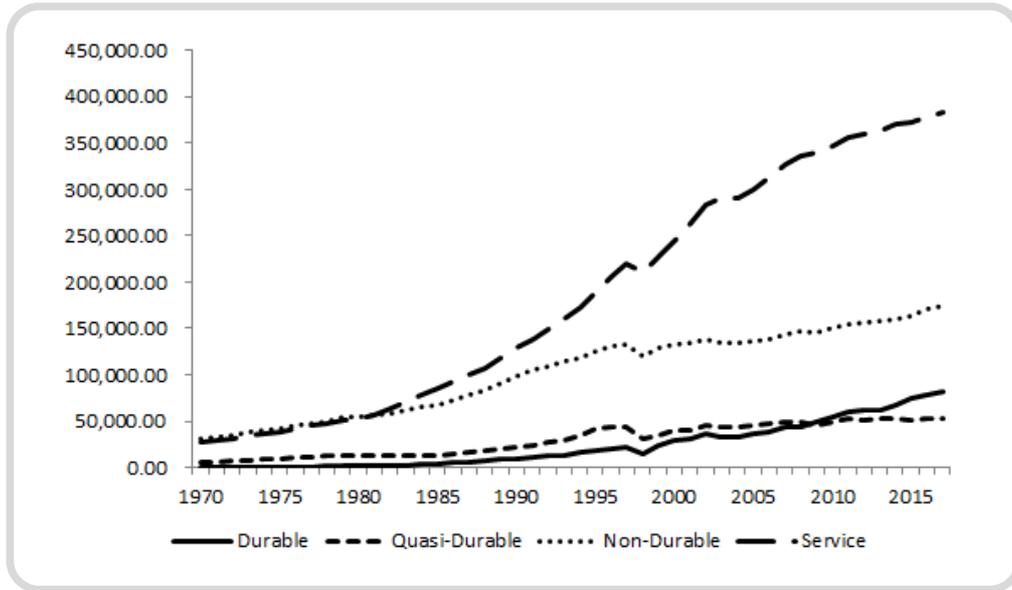
본 논문의 구성은 제 II장에서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제 III장에서는 세계화지표의 특성을 설명하고, 제 IV장에서는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끝으로 제 V장에서는 결론이 제시된다.

II. 분석자료 및 추정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KOF Swiss Economic

Fig.1 Trends of Consumptions Classified by Type



Institute(이하 KOF)가 발표한 세계화지표를 활용하였다. Gygli et al. (2018)은 KOF의 세계화지표를 경제적차원, 사회적차원, 정치적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지표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세계화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F 세계화지표 중에서 무역차원 세계화지표와 금융차원 세계화지표를 활용하였다.

무역차원 세계화지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에 대한 GDP의 비율 및 무역파트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금융차원 세계화지표는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 비율, GDP 대비 국제 주식포트폴리오 투자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 비율, GDP 대비 국제 포트폴리오 채무증권과 은행대출의 합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Gygli et al. 참조, 2018).

한편 한국의 세계화지표를 OECD 공통요인(common factor), 지역요인(regional factor), 개별국가요인(idiosyncratic country-specific factor)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OECD국가 중에서 이용 가능한 30개 국가 세계화지표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편 소비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가계 최종소비지출, 실질 GDP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통계청으로부터의 고령화지수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지수는 전체인구 대비 65세인구로 정의되었다. 소비와 관련이 있는 금리는 IMF-IFS로부터 1973-2017년까지의 국제수익률을 활용하였다. 국제수익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국제수익률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2016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1〉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의 소비추이를 보이고 있다. 형태별 소비의 특징을 보면, 80년대 이후부터 서비스소비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편 외환위기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내구재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준내구재소비를 추월하였다. 즉 소비구성에서 의류 등의 준내구재 보다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내구재소비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Fig.2〉는 가계소비증가율, GDP 성장률, 실질금리, 고령화지표의 변화율을 보여 주고 있다. 가계소비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동조성을 보이고 있

Fig.2 Household Consumption Growth Rate, GDP Growth Rate, Real Interest Rate, Change Rate of Aging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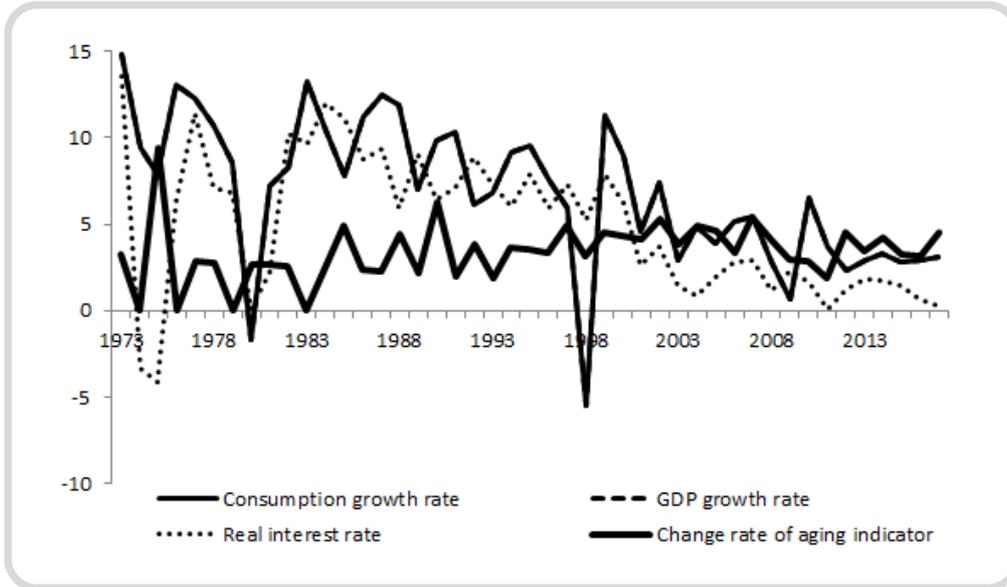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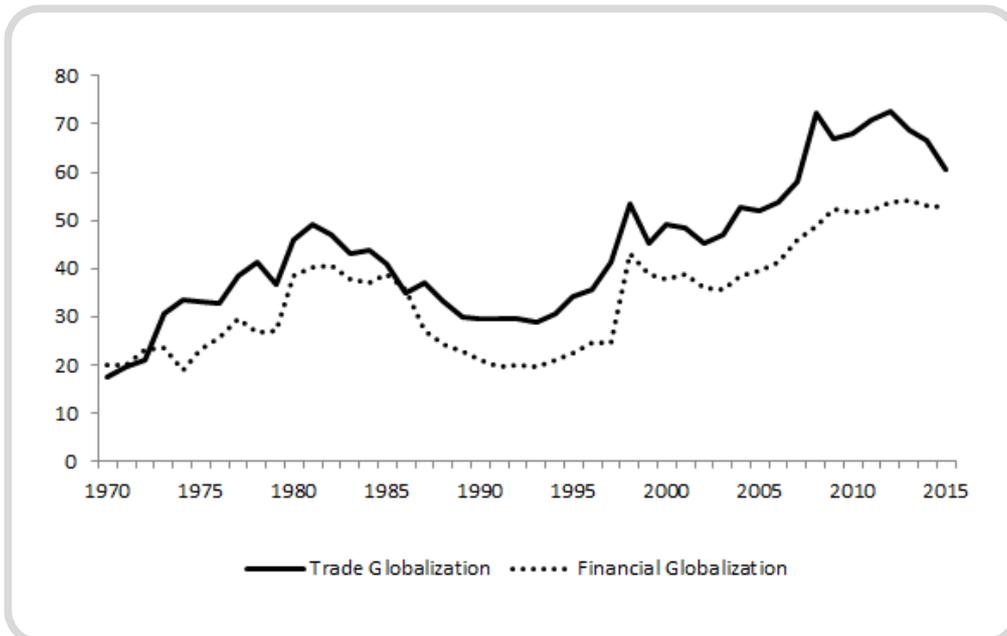


Fig.3 Trade Globalization and Financial Globalization



다. 다만 2000년대 이전에는 GDP성장률에 비해서는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 이후 가계소비증가율의 변동 폭이 GDP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금리는 소비증가율과 역관계를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소비증가율 둔화와 함께 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g.3>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무역차원 세계화지표와 금융차원 세계화지표의 추이는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70년대에는 상승추이를 보이다가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화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시기지만, WTO체제 이전이어서 교역국가의 다양성이 부족할 측면이 있으며, GDP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완만하게 증가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WTO체제하에서 무역차원 및 금융차원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추정모형

1) 시간가변형 동학적

요소분석모형(Time-Varying Dynamic Factor Model)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세계화지표를 OECD 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으로 분해하기 위해 Bhat, Kishor and Ma (2017)가 제시한 시간가변성 동학적요소 모형(time-varying dynamic factor model)을 활용하였다. Bhat, Kishor and Ma(2017)는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y_{i,t} = \alpha_{i,t} \cdot g_t + \beta_{i,t} \cdot r_t + e_{i,t} \tag{1}$$

여기서 $y_{i,t}$ 는 OECD국가 i 의 세계화지수의 로그차분 변수이다. g_t 는 OECD 공통요인(common factor)으로 모든 국가의 세계화지표에 영향을 준다. $\alpha_{i,t}$ 는 t 시점에 OECD 공통요

인이 i 국가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보이는 계수 값이다. r_t 는 지역요인으로 i 국가가 속한 지역요인을 의미한다. r_t 는 지역요인 $r_{j,t}$ 로 구성된 m 개 지역의 벡터를 포괄한다. $\beta_{i,t}$ 는 i 국가가 j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지역요인 $r_{j,t}$ 가 개별국가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이다. 이때, i 국가가 j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의 계수 값은 0으로 정해진다. 한편, $\alpha_{i,t}$ 와 $\beta_{i,t}$ 는 다음과 같은 임의보행(random walk)의 형태를 취한다.

$$\begin{aligned} \gamma_{i,t} &= \gamma_{i,t-1} + \omega_{i,t}, \\ \omega_{i,t} &\sim i.i.d.N(0, \Sigma^R) \end{aligned} \tag{2}$$

여기서, $\gamma_{i,t} = [\alpha_{i,t}, \beta_{i,t}]'$ 이다.

한편 OECD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세계화지수를 분산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Var(y_{i,t}) &= \alpha_{i,t}^2 \cdot Var(g_t) + \beta_{i,t} \cdot Var(r_t) \\ &\quad \cdot \beta_{i,t}' + Var(e_{i,t}) \end{aligned}$$

또한 OECD공통요인은 다음과 같은 AR(p) 과정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g_t = \pi_1^g \cdot g_{t-1} + \pi_2^g \cdot g_{t-2} + \dots + \pi_p^g \cdot g_{t-p} + \exp(h_t^g) \cdot v_t^g$$

여기서 $v_t^g \sim i.i.d.N(0, \sigma_g^2)$ 이며, 공통요인의 확률적변동성은 다음과 같은 임의보행과정을 따른다,

$$\begin{aligned} h_t^g &= h_{t-1}^g + \sigma_g^h \cdot \psi_t^g, \\ \psi_t^g &\sim i.i.d.N(0,1) \end{aligned} \tag{5}$$

한편 각각의 지역요인도 공통요인과 동일하게 AR(k)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r_{j,t} = \pi_{j,1}^r \cdot r_{j,t-1} + \pi_{j,2}^r \cdot r_{j,t-2} + \dots + \pi_{j,k}^r \cdot r_{j,t-k} + \exp(h_{j,t}^r) \cdot v_{j,t}^r$$

여기서 $v_{j,t}^r \sim i.i.d.N(0, \sigma_{j,r}^2)$ 이며, 공

통요소들의 확률적변동성은 다음과 같은 임의보행 과정을 따른다,

$$h_{j,t}^r = h_{j,t-1}^r + \sigma_{j,r}^h \cdot \psi_{j,t}^r, \quad \psi_{j,t}^r \sim i.i.d.N(0,1)$$

각각 개별국가요인은 AR(q)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e_{i,t} = \pi_{i,1} \cdot e_{i,t-1} + \pi_{i,2} \cdot e_{i,t-2} + \dots + \pi_{i,q} \cdot e_{i,t-q} + \exp(h_{i,t}) \cdot v_{i,t} \quad (8)$$

여기서 $v_{i,t} \sim i.i.d.N(0, \sigma_i^2)$ 이며, 개별 국가요인의 확률적변동성은 다음과 같은 임의보행과정을 따른다,

$$h_{i,t} = h_{i,t-1} + \sigma_i^h \cdot \psi_{i,t}, \quad \psi_{i,t} \sim i.i.d.N(0,1) \quad (9)$$

한편 위의 방정식들에서 잔차항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며, OECD공통요인과 지역요인의 변동성은 1로 정규화하였다. 즉 $\sigma_t^2 = \sigma_{1,r}^2 = \dots = \sigma_{m,r}^2 = 1$ 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j = 1,2,3,\dots,m$ 과 $i = 1,2,3,\dots,n$ 에 대하여 $h_0^g = h_{j,0}^r = h_{i,0}$ 이며, 초기 값은 0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식(4), 식(6), 식(8)과 $g_t, r_t, e_{i,t}$ 의 변동성에 대한 초기 값 1, $h_0^g = h_{j,0}^r = h_{i,0}$ 의 초기 값 0을 활용하면 $g_t, r_t, e_{i,t}$ 의 초기 값들은 1로 도출된다. 본 모형은 Monte Carlo Markov Chain(MCMC) 베이지안 추정방법²⁾을 활용하여 추정되었다

2) 소비함수모형

소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는 소득, 인구구조, 금리, 세계화 등

이다. 먼저, 실질GDP가 증가하면, 소비여력이 확대되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인구구조로는 대표적으로 고령화지수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고령인구의 소비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든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저축 또는 부동산 투자 등을 증대시키면, 청장년층의 소비도 감소할 수 있다. 셋째,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한다. 반면, 저금리가 지속되면, 부채를 늘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리금 상환 등의 부담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리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가계부채문제는 주로 2000년대에 나타난 현상이고, 본 연구의 기간이 1970년~2016년 기간의 연간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계부채문제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지표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세계화지표는 무역차원 세계화와 금융차원 세계화로 구분하였다. 무역차원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경제양극화를 통하여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값싼 수입품의 등장으로 소비를 확대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차원의 세계화는 자본의 유출입이 확대됨에 따라 차입제약을 약하게 하여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융차원의 세계화도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 할 수 없다. 한편 무역차원 세계화지표와 금융차원 세계화지표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차원 세계화와 금융차원 세계화를 분리한 두 개의 소비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들을 고려한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_t = f(Y_t, Tglob_t, pop_t, rate_t), \quad (10)$$

$$C_t = f(Y_t, Fglob_t, pop_t, rate_t),$$

2) 본 연구의 추정모형은 Bhat, Kishor and Ma (2017)가 제공하는 matlab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정되었다.

(11)

여기서 C_t 는 실질소비, Y_t 는 실질GDP, $Tglob_t$ 는 무역차원 세계화, $Fglob_t$ 는 금융차원 세계화, pop_t 는 인구구조 또는 고령화지수, $rate_t$ 는 실질금리를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지표를 시간가변형 동학적 요소분석모형에 의해 OECD 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으로 분해하여 OECD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세계화가 세계적인 흐름에 기인 한 부분과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으로 분해 한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의도이다. 소비가 OECD 공통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정책대안은 세계화 자체보다는 소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만, 소비가 세계화의 개별국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세계화와 연관된 국내정책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지표가 OECD 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으로 분해된 경우의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C_t = f(Y_t, Tglob_W_t, Tglob_R_t, Tglob_C_t, pop_t, rate_t), \quad (12)$$

$$C_t = f(Y_t, Fglob_W_t, Fglob_R_t, Fglob_C_t, pop_t, rate_t), \quad (13)$$

여기서 $Tglob_W_t$ 는 무역차원 세계화의 OECD 공통요인, $Tglob_R_t$ 은 무역차원 세계화의 지역요인, $Tglob_C_t$ 는 무역차원 세계화의 개별국가요인, $Fglob_W_t$ 는 금융차원 세계화의 OECD 공통요인, $Fglob_R_t$ 은 금융차원 세계화의 지역요인, $Fglob_C_t$ 는 금융차원 세계화의 개별국가요인이다.

III. 시간가변형 동학적 요소분석모형에 의한 세계화지표 분해

1. 추정조건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³⁾들의 무역차원 세계화지표, 금융차원 세계화지표 그리고 시간가변형 동학적 요소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세계화지표의 변화율을 OECD 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으로 분해⁴⁾하였다. OECD 공통요인은 세계화지표의 변화율 중에서 OECD 공통요인에 의해 유발된 부분이다. 한편 지역요인은 세계화지표 변화율 중에서 지역요인에 의해 유발된 부분이다. 개별국가요인은 세계화지표 변화율 중에서 한국의 순수한 영향만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은 유럽지역과 유럽외지역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은 유럽외 지역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교역규모가 미국, 일본 등 유럽외 지역에 대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모형은 gibbs sampling기법에 의하여, 200개의 모의실험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중앙값(median)을 소비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무역차원 및 금융차원 세계화지표의 변화율은 추정결과로부터 OECD 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으로 분해된다. 또한 OECD 공통요인 및 지역요인이 한국의 세계화지표에 미치는 시간가변형 계수 값(loading factor)도 함께 추정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 30개의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명은 다음과 같다.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Switzerland, Chile, Germany, Denmark, Spain, Finland, France, United_Kingdom, Greece, Hungary, Ireland, Ic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orway, New_Zealand, Poland, Portugal, Sweden, Turkey, United_States

4) 본 연구에서 OECD공통요인과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는 한국 뿐 만아니라 연구대상이 되는 OECD국가들 모두에 대해서도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국내소비에 대한 연구이므로 한국의 세계화지표와 관련된 부분만을 제시하였다.

Fig.4 Estimated Common Factor, Non-EU Factor and Country Factor of Financial Glob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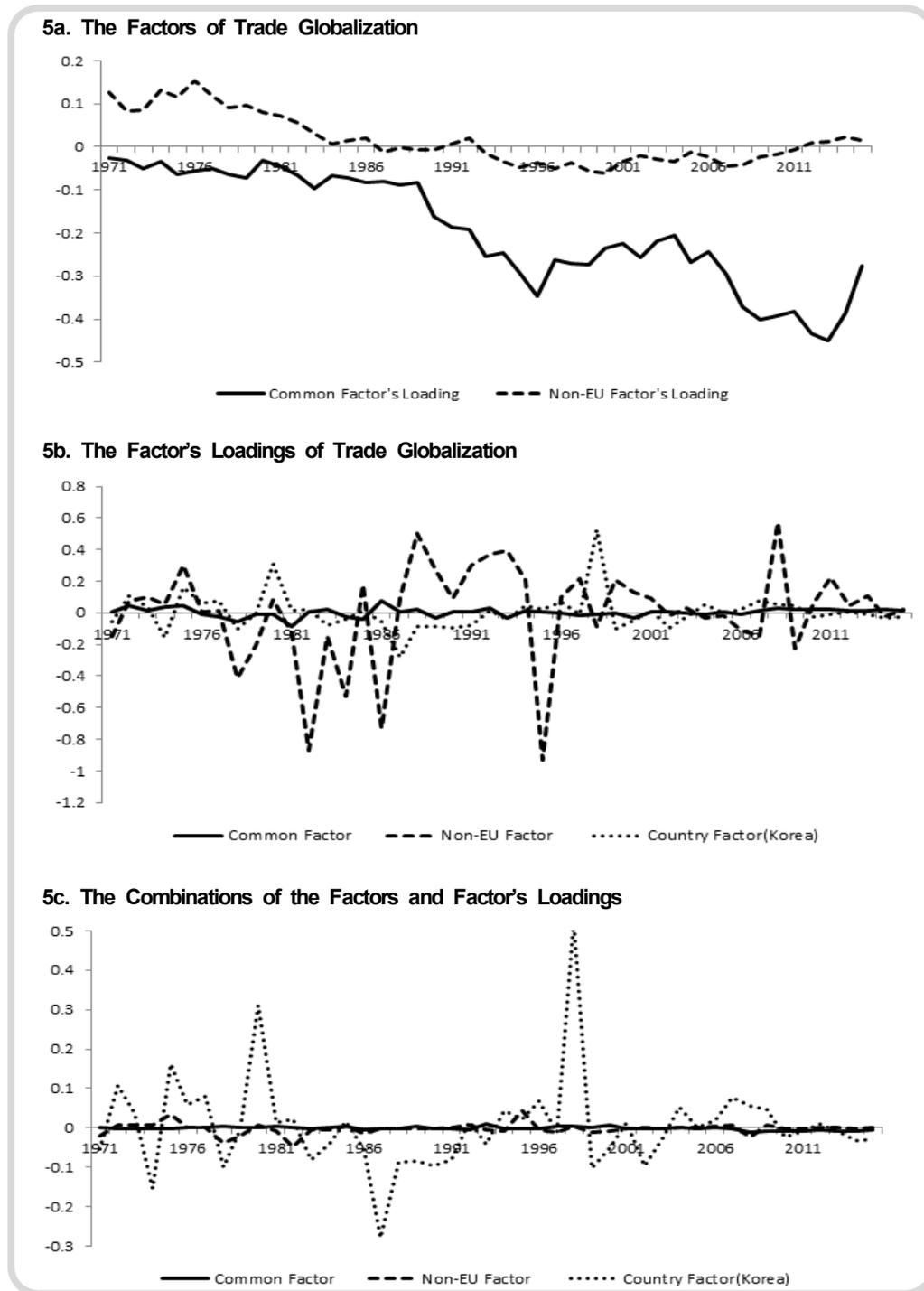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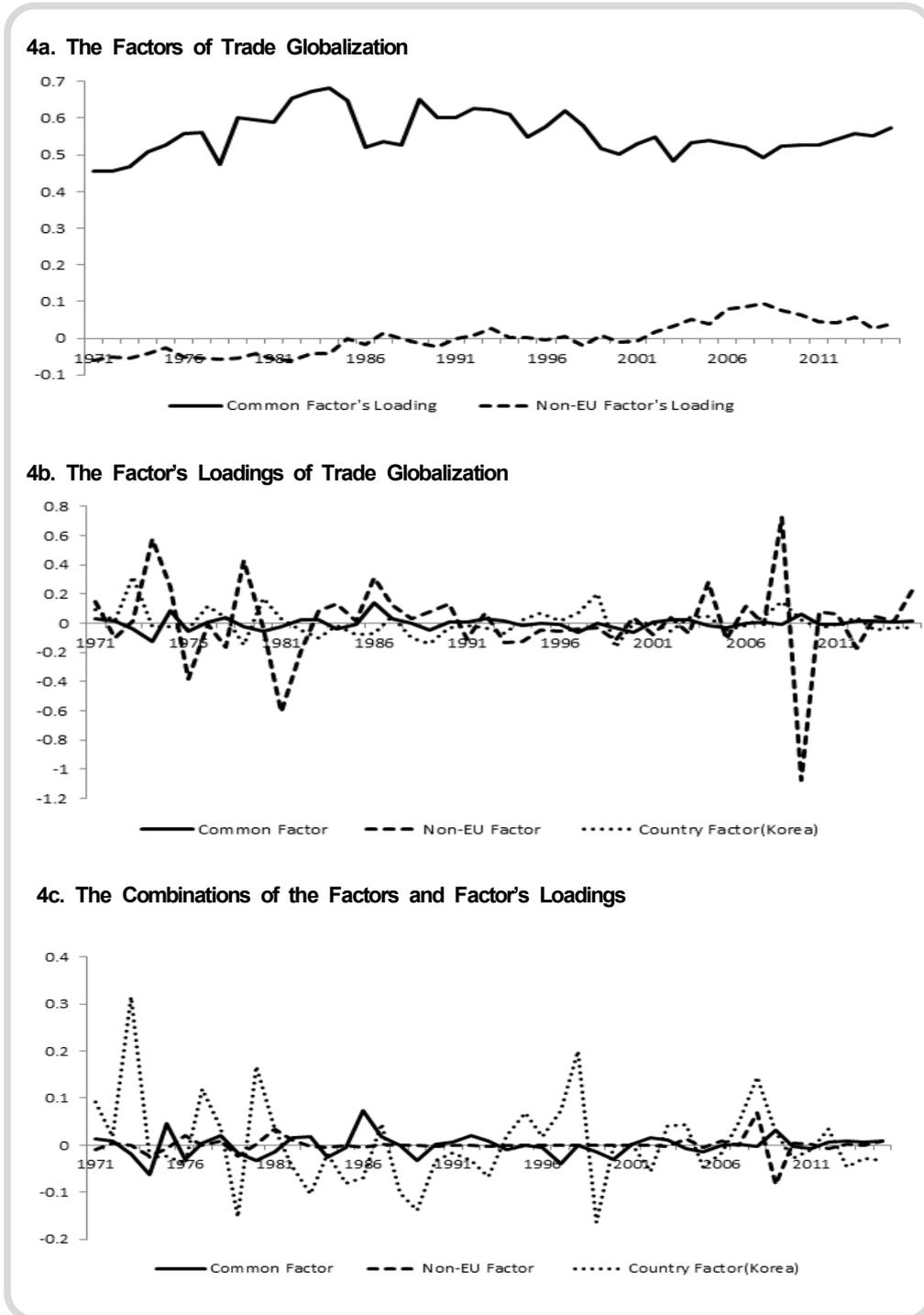


Fig.5 Estimated Common Factor, Non-EU Factor and Country Factor of Trade Globalization



〈Fig.4〉는 한국의 무역차원 세계화지표가 요인별로 분해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4〉의 첫 번째 그림은 무역차원 세계화지표의 요인별 규모를 나타낸다. 세계화지표 변동성에서 OECD공통요인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지역요인의 규모가 가장 컸다. 개별국가요인은 OECD공통요인 수준의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Fig.4〉의 두 번째 그림에서 OECD공통요인이 세계화지표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 즉 계수 값은 지역요인의 계수 값보다 컸다. 〈Fig.4〉의 두 번째 그림에서 개별국가요인의 계수 값은 1이므로 표시하지 않았다. 〈Fig.4〉의 세 번째 그림은 OECD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과 무역차원 세계화지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 값들이 결합된 실제적인 영향을 제시한다.

〈Fig.4〉의 세 번째 그림에서 무역차원 세계화지표의 구성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개별국가요

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록 개별국가요인의 규모는 작지만, 그 영향이 한국의 세계화지표에 100% 반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개별국가요인은 음(-)의 변화율을 보이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차원 세계화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무역차원 세계화가 약화되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Fig.5〉는 우리나라 금융차원 세계화지표의 요인별 분해결과를 보여준다. 〈Fig.5〉의 첫 번째 그림은 금융차원 세계화지표의 요인별 규모를 보여준다. 세계화지표 변동성에서 OECD공통요인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지역요인의 규모가 가장 크다. 개별국가요인도 낮은 규모를 나타내었다. 반면, 〈Fig.5〉의 두 번째 그림에서 OECD공통요인이 금융차원 세계화지표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 즉 계수 값은 지역요인의 계수 값보다 크다. 〈Fig.5〉의 세 번째 그림은 OECD

Table 1. Unit Root Test

		ADF test		PP test	
		level	1st difference	level	1st difference
log(Real Private Consumption)	constant	-2.66	-3.79**	-3.17*	-5.26**
	constant, trend	0.14	-5.05**	0.45	-6.27**
log(Durable Consumption)	constant	-2.58	-4.84**	-2.60	-6.73**
	constant, trend	-0.64	-5.97**	-0.67	-7.55**
log(Quasi-Durable Consumption)	constant	-1.92	-3.95**	-2.50	-5.13**
	constant, trend	-1.40	-4.35**	-1.26	-5.45**
log(Non-Durable)	constant	-3.38*	-3.33*	-3.68**	-5.39**
	constant, trend	-0.95	-4.47**	-0.88	-6.77**
log(Service Consumption)	constant	-2.93*	-2.38	-4.07**	-3.65**
	constant, trend	1.25	-4.07*	1.53	-5.34**
log(Real GDP)	constant	-3.82**	-3.04*	-5.17**	-4.49**
	constant, trend	0.03	-5.43**	0.10	-6.55**
log(Trade Globalization)	constant	-2.20	-4.17**	-2.39	-6.05**
	constant, trend	-2.29	-4.23**	-2.37	-6.14**
log(Financial Globalization)	constant	-1.35	-4.52**	-1.36	-6.30**
	constant, trend	-1.81	-4.47**	-1.79	-6.22**
Real Interest Rate	constant	-3.34*	-7.89**	-4.07**	-10.78**
	constant, trend	-5.15**	-8.07**	-4.48**	-8.89**
log(Aging Indicator)	constant	3.09	-4.37**	2.84	-7.98**
	constant, trend	-2.96	-4.85**	-2.40	-9.50**

Notes: (***) indicate that there is no unit root under the 5%(1%) significance level. The lag for the unit root test is set at one year

Table 2 Johansen Cointegration Test

Consumption Variables	Globalization Variables	Statistics	r=0	r≤1	r≤2
Real Private Consumption	Trade	Trace Statistics	66.4*	31.9*	8.1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34.5*	23.7*	8.0
	Financial	Trace Statistics	54.2*	23.5	7.8
Durable Consumption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30.8*	15.7	7.6
	Trade	Trace Statistics	71.5*	29.5	8.5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42.0*	21.0*	8.4
Quasi-Durable Consumption	Financial	Trace Statistics	67.5*	26.0	7.5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41.5*	18.5	7.3
	Trade	Trace Statistics	68.6*	32.3*	10.0
Non-Durable Consumption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36.2*	22.3*	10.0
	Financial	Trace Statistics	74.8*	40.9*	14.4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33.9*	26.6*	14.2*
Service Consumption	Trade	Trace Statistics	57.3*	21.7	3.3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35.7*	18.4	3.3
	Financial	Trace Statistics	51.3*	18.8	3.7
Service Consumption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32.5*	15.1	3.6
	Trade	Trace Statistics	57.0*	26.6	8.3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30.4*	18.3	5.0
Service Consumption	Financial	Trace Statistics	51.2*	22.3	9.5
	Globalization	Max-Eigen Statistics	28.9*	12.9	5.4

Note: * denotes cointegration under the 5%. The lag for the cointegration test is set at one year. The cointegration test includes a constant term but no trend

공통요인, 지역요인, 개별국가요인과 무역차원 세계화지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 값들이 결합된 실제적인 영향을 제시한다. <Fig.5>의 세 번째 그림에서 금융차원 세계화지표의 구성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개별국가요인으로 나타났다. OECD공통요인과 지역요인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합하면, 비록 세계화지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OECD공통요인이나 지역요인이 개별국가요인보다 큰 규모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의 세계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국가요인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IV. 소비함수의 추정 결과

1.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

본 연구에서는 소비함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각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근 검정방법으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검정을 적용하였다.

<Table 2>는 공적분검정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실질민간소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에 무역차원 세계화지표가 포함된 경우에 공적분이 2개 존재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실질민간소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에 금융차원 세계화지표가 포함된 경우에 공적분이 1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도 종속변수가 내구재소비, 준내구재소비, 비내구재소비, 서비스소비인 경우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였다.

2. 소비함수의 추정결과

Table 3. The Estimations of The Error Correction Models(Trade Globalization)

	Household Consumption Growth Rate	Durable Consumption Growth Rate	Quasi-Durable Consumption Growth Rate	Non-Durable Consumption Growth Rate	Service Consumption Growth Rate
Constant	-0.0149 (0.1754)	-0.0581 (0.1532)	-0.1073** (0.0029)	0.0012 (0.9163)	0.0231 (0.0893)
Real GDP Growth Rate	0.8986** (0.0000)	2.5197** (0.0000)	1.8678** (0.0000)	0.6014** (0.0000)	0.5962** (0.0000)
Change Rate of the Aging Indicator	0.0360 (0.1504)	0.0301 (0.7367)	0.1264* (0.0931)	-0.0324 (0.2103)	-0.0264 (0.4001)
Change of Interest Rate	-0.0011 (0.1617)	0.0011 (0.6733)	-0.0024 (0.2968)	-0.0010 (0.1563)	-0.0002 (0.8120)
Trade Globalization Common Factor	-0.2238 (0.1207)	0.2732 (0.6073)	-0.0495 (0.9124)	-0.0704 (0.6123)	-0.0774 (0.6390)
Trade Globalization Non-EU Factor	-0.0944 (0.5731)	-0.0574 (0.9250)	-0.1909 (0.7109)	0.1404 (0.3935)	-0.0362 (0.8502)
Trade Globalization Country(Korea) Factor	-0.0879* (0.0786)	-0.5193** (0.0046)	0.1053 (0.4945)	-0.1328** (0.0056)	-0.0435 (0.4106)
Error Correction Term	-0.2361** (0.0240)	-0.3038** (0.0092)	-0.0922 (0.3414)	-0.1397 (0.1557)	-0.1700* (0.0928)

Note: *(**) indicates that the null hypothesis is rejected under the significant level of 10%(5%). () is p-value
Usable Observations are 41

본 연구에서는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상품 형태별 소비함수들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로부터 소비는 세계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은 무역차원 세계화를 포함한 소비 함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실질 GDP성장률은 가계소비증가율 뿐 만 아니라 내구재 소비증가율, 준내구재 소비증가율, 비내구재 소비증가율, 서비스 소비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GDP성장률은 내구재소비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내구재 소비증가율에 계수 값이 2.52로 다른 소비함수들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내구재소비가 경제성장률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준내구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비내구재소비와 서비스소비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내구재는 소득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필수

재이며, 서비스도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한편 고령화지수 변화율은 내구재 소비증가율, 비내구재 소비증가율, 서비스 소비증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준내구재 소비증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노인 관련 준내구재의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자율은 소비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한다. 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채를 증가시켜 부동산을 구매하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추정결과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로들이 혼재하여, 이자율이 소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오차수정항은 가계소비증가율, 내구재 소비증가율, 서비스 소비증가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무역차원 세계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무역차원 세계화는 소비에 부정적

Table 4. The Estimations of The Error Correction Models(Financial Globalization)

	Household Consumption Growth Rate	Durable Consumption Growth Rate	Quasi-Durable Consumption Growth Rate	Non-Durable Consumption Growth Rate	Service Consumption Growth Rate
Constant	-0.0069 (0.6355)	-0.0005 (0.9905)	-0.0571 (0.1468)	0.0078 (0.5597)	0.0184 (0.2826)
Real GDP Growth Rate	0.8211** (0.0000)	1.9571** (0.0000)	1.4400** (0.0003)	0.5849** (0.0000)	0.6268** (0.0002)
Change Rate of the Aging Indicator	0.0266 (0.3934)	-0.0646 (0.4662)	0.0394 (0.6127)	-0.0595** (0.0357)	-0.0133 (0.7139)
Change of Interest Rate	-0.0011 (0.1496)	-0.0019 (0.4090)	-0.0005 (0.8032)	-0.0014* (0.0603)	-0.0005 (0.5943)
Financial Globalization Common Factor	0.5252 (0.4908)	-2.2635 (0.3018)	-1.3219 (0.5169)	-1.2808* (0.0681)	0.7817 (0.3433)
Financial Globalization Non-EU Factor	-0.0704 (0.6709)	-1.1395 (0.1113)	1.3122* (0.0501)	-0.1280 (0.5509)	-0.1371 (0.5940)
Financial Globalization Country(Korea) Factor	-0.0702* (0.0765)	-0.4748** (0.0006)	-0.1389 (0.2289)	-0.0747** (0.0410)	-0.0031 (0.9410)
Error Correction Term	-0.2312** (0.0345)	-0.3850** (0.0003)	-0.0589 (0.5409)	-0.1793* (0.0737)	-0.1628 (0.1051)

Note: *(**) indicates that the null hypothesis is rejected under the significant level of 10%(5%). () is p-value
Usable Observations are 4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OECD공통요인이나 지역요인이 아니라 개별국가요인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OECD공통요인과 지역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개별국가요인은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증가율을 제외한 내구재, 비내구재의 소비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요인은 내구재 소비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Table 4〉는 금융차원 세계화를 포함한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실질GDP성장률은 가계소비증가율 뿐 만 아니라 내구재 소비증가율, 준내구재 소비증가율, 비내구재 소비증가율, 서비스 소비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무역차원 세계화를 포함한 소비함수모형과 유사하다. 반면 고령화지수 변화율은 무역차원 세계화를 포함한 소비함수모형과 다르게 비내구재소비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다. 이자율은

소비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지만, 비내구재 소비증가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오차수정항은 가계소비증가율, 내구재 소비증가율, 비내구재 소비증가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한편 금융차원 세계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금융차원 세계화는 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무역차원 세계화가 포함된 모형과는 다소 차이를 가진다. 즉, OECD공통요인은 비내구재 소비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차원 세계화의 개별국가요인은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소비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요인은 내구재 소비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역차원 세계화를 포함한 소비함수모형과 금융차원 세계화를 포함한 소비함수모형으로 부터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세계화는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 예산제약의 완화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측면보다는 소득양극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통하여 소비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세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였지만, 세계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별국가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소비 감소를 유발한 무역차원 및 금융차원 세계화는 수출증대 및 국내자본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려고 한 우리나라 세계화 정책, 즉 무역차원 및 금융차원 세계화의 개별국가요인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역차원 세계화와 금융차원 세계화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로 분류된 형태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무역차원 세계화지표와 금융차원 세계화지표는 시간가변형 동학적 요소분석(time-varying dynamic factor analysis)에 의하여 OECD 공통요인(common factor), 지역요인(regional factor), 개별국가요인(idiosyncratic factor)으로 분해되었다. 무역차원 및 금융차원 세계화의 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

인들이 형태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무역차원 및 금융차원 세계화지표를 분해한 결과로부터 OECD공통요인이나 지역요인이 개별국가요인보다 큰 규모를 가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공통요인 및 지역요인이 우리나라 세계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무역차원 및 금융차원 세계화지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개별국가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또한 세계화는 전반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무역차원 세계화와 금융차원 세계화의 개별국가요인이 형태별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소득탄력성이 큰 내구재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세계화는 통제 불가능한 세계적 흐름이 아니라 정책적, 경제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세계화 정책 또는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세계화 정책은,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확대시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계화정책은 국내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소득분배 및 내수경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Bae, MiKyeong and Kwanghee Park (2005), "A Study of Consumption Patterns for High-Income Households-Six Major Expenditure Categor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3), 423-432.
- Bhatt, V., N. K. Kishor and J. Ma(2017), "The Impact of EMU on Bond Yield Convergence: Evidence from a Time-Varying Dynamic Factor Model",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82, 206-272.
<http://dx.doi.org/10.1016/j.jedc.2017.06.008>
- Chen, Xiaofen (2017), "Globalization and Household Saving: Is there a Link ?", *Applied Economics*, 49(29), 2797-2816.
<https://doi.org/10.1080/00036846.2016.1248355>

- Choi, Nam-Jin and Dong-Hun Joo (2016), "Effect of Household Debt and Volatility of Debt on the Consumption and Growth Rate", *Journal of Finance & Knowledge Studies*, 14(1), 71-100.
- Choi, Heegab(2003), "Consumption under Uncertainty: Use of Direct Observations on Expectations", *KUKJE KYUNGJE YONGU*, 9(1), 187-206.
- Gygli, S., F. Haelg, and J.E. Sturm (2018), "The KOF Globalization Index-Revisited". *KOF Working Paper* 439, KOF Swiss Economic Institute.
- Hall, R.E.(1978), "Stochastic Implications of the Life Cycle-Permanent-Income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971-87.
- Hwang, Jinyoung and Sun-Ho Lee (2015), "Household Debt and Its Impacts on Consumption and Income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17(2), 127-153.
- Kang, Hui-Don and In-Hwan So (2005), "The Effects of National Pension and Population Aging on Private Consumption and Savings", *Monthly Bulletin*, The Bank of Korea, 23-61.
- Kim, Byung-Woo (2018), "Effects on Consumption of Public Social Security",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11(1), 109-145.
- Kim, Ji-Yong (2017), "An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Metal Items in the Korean Market under Korea-China FTA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8(1), 67-77.
- Kim, Jin-Woo and Seung Hee Kim (2018),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Housing Price", *Residential Environment*, 6(4), 179-195.
<http://dx.doi.org/10.22313/reik.2018.16.4.179>
- Kim, Tae-Hwan and Yunmi Kim (2018), "The Asymmetric Nature of Rule-of-Thumb Consumers", *Applied Economics*, 16(1), 115-134.
- Kim, Young-Joon and Jong Chil Son (2014), "The Effect of Global Outsourcing and Technological Change on Skill Premium in Korea", *KYUNG JE HAK YON GU*, 62(1), 91-131.
- Kónya, I. and H. Ohashi(2004), "Globaliza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 Lee, Sun-Ok (2011), "Theory and Measurement of Consumption Function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24(1), 1-25.
- Noh, Mean-Sun (2019), "An Analysis on Wage Difference between Large and Medium-Small Firms in Korea and Japan", *KOSBI Small Business Focus* 19(10).
- Shena, Zhi-Feng, Tae-In Kim and Ji-Jian Gu(2017),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RCA and TSI",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8(2), 57-73.
- Yo, JooHee and Choon-Geol Moon (2011), "Consumption Smoothing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2(1), 1-25.
- Yoon, Jai-Hyung (2017),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8(2), 41-53.
- Yoon, Jai-Hyung (2018),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Employment: An Analysis using Panel Cointegration Method",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1(6), 1943-1965.
<http://dx.doi.org/10.22558/jieb.2018.12.31.6.1943>